

2018년 5월 소그룹 모임 교재 - 인도자용

(1주) 첫째 주 소그룹 모임

본문: 열왕기하 4:1-7

주제: 기름 한 그릇의 기적

찬송:

새542 (통340) 구주 예수 의지함이

새218 (통369) 네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새363 (통479) 내가 깊은 곳에서

1. 여는 질문

이번 달에 나의 가족을 위해서 가장 소망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내가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무엇입니까?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한국에서는 어버이날과 어린이날 행사를 5월에 하고, 미국에서는 5월 둘째 주일에 어머니날을 지킵니다. 또한 연합감리교회에서는 어머니가 너무 일찍 돌아시긴 분이냐, 아이들을 가지고 싶지만 건강 등의 이유로 엄마가 될 수 없는 분들 등 여러가지로 어머니날이 가슴 아픈 날이 될 수도 있기에 어머니날 대신에 "신앙 가정의 날"로 대신 지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5월은 가족과 가정의 중요성을 생각하기에 좋은 날입니다. 가족을 위해 소망하는 바를 나누고, 가족의 건강과 신앙을 위해 할 수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이번 주 소그룹을 시작합니다.

2. 본문 이해

선지자 엘리사는 거짓 선지자들을 물리치는 등 나라를 위한 정치와 군사 활동을 활발히 하기도 했으나, 또한 하나님의 일반 백성들의 삶을 위해 열정을 다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열왕기하 4장에서는 과부에게 기름을 풍요롭게 늘려주는 기적, 아들이 없고 남편이 연로해 가서 외로워하는 여인에게 아들을 약속하여 주는 선행, 가난한 자들에게 보리떡 이십 개로 백명을 먹이고도 남기는 기적 등을 행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모두 하나님 백성들을 궁핍히 여기며 사랑하는 자비로운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율법에 의하면, 결혼한 남자가 빚을 지고 죽을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과 아이들까지도 빼앗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물론 빚을 갚지 못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가난이 대를 이어 계속되는 상황에서 당장 돈을 갚을 길이 없는 가난한 자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선지자 아모스는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라며 그 불의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아모스 2:6). 열왕기 4장에 나오는 이 과부는 남편이 빚을 남기고 죽자, 아들 둘을 노예로 보낼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에, 엘리사는 가진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과부는 있는 것이라고는 단자 기름 한 그릇 뿐이라고 합니다. 빚을 다 갚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 기름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양의 기름을 풍

성하게 늘려서, 이 여인이 빛을 다 갠고도 남은 것으로 아들과 생활까지 할 수 있게하는 기적을 행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의 상상으로는 가능치 않은 기적들이 생깁니다. 기적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힘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기적이 마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엘리사는 과부에게 이미 있는 것, 즉 "기름 한 그릇"을 사용해서 그 양을 많게 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서, "네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힘이 우리 내에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그 무엇을 활용하여 우리를 돕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작고 쓸모 없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기름 한 그릇"은 무엇일까요?

이 기적은 예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상기시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고작 다섯조각의 떡과 생선 두마리로 수천명의 군중에게 식사를 제공하신 것입니다. 남성만 오천명이라 하였으니, 여성과 어린이들을 합하여 만명이 족히 넘었을 것입니다. 특히 요한복음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어린이가 먼저 자기의 양식을 예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들으셔서 크게 만드신다.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가 가진 것 등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크게 쓰실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3. 말씀 속으로

엘리사가 과부에게 집에 무엇이 있는지 물어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엘리사는 과부를 도와 줄 때에 과부가 어느 먼 곳에 가서 어렵게 무엇을 구해오라고 하지 않았습니 다. 가장 쉽게, 집에 있는 무엇인가를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행하여 질 때에 꼭 어디엔가 숨겨져 있는 보물을 찾는 것처럼 까다로운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눈 앞에 그리고 가까운 곳에 흔히 있는 작은 것이 크게 되는 예를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집"과 같은 내가 매일 살고 있는 공간에서 경험됩니다.

과부는 엘리사 이외에도 누구의 도움을 받았는가요?

아무리 하나님이 기름을 늘리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신다 하여도 그 기름을 담은 그릇들이 없었더라면,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과부가 그릇을 요청하였을 때 이웃들은 본인들의 그릇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 아들들도 엄마가 기름을 붓는 일을 도와 주었습니다. 과부의 어려움 속에서 그녀는 혼자서 끙대며 모든 일을 해결해야 했던 것이 아니고, 그녀의 가족, 그리고 이웃 공동체가 함께 도와 주어서 큰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습니다.

4. 삶 속으로

비록 작지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나의 "작은 기름 한 그릇"은 무엇일까요?

과부의 작은 기름 한 그릇처럼 무엇인가 소그룹 참석자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봅니다. 우리는 모두 취미, 경험, 기술 등이 있습니다. 음악, 글쓰기, 교육, 직장경험, 스포츠 특기 등 다양한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쓸 수 있을지 생각해 봅니다. 또한 각자 가지고 있는 자산 (재물, 돈, 집과 같은 공간 등)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아무리 작고 우리

눈으로는 쓸모 없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도록 하는 방법을 함께 모색해 봅시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과부는 선지자에게 나아갔는데, 나는 가족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나요?
과부가 선지자를 찾아간 이유는 혼자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들들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남편이 없는 가운데 서글픈 일도 많았을 이 과부는 아들들을 위해 용기를 내어서 적극적으로 행
동을 하였습니다. 소그룹 참석자들을 가족을 위해서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 혹은 과거에 한 일
이 있는지, 혹은 보다 좋은 미래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물어봅니다.

5. 암송구절: 열왕기하 4:2a (한 주간 동안 암송구절을 암기하신 후, 다음 모임에서 서로 확인합니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고하라.”

6. 자녀와의 나눔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소그룹 나눔을 진행하시면서 나눌 수 있는 질문입니다.)

아이들에게 “너는 하나님께 가장 간절히 부탁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니?” 하고 물어봐 주세요.

(2주) 둘째 주 소그룹 모임

본문: 열왕기하 7:3-10

주제: 절망 속의 희망

찬송:

새412 (통469)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데서

새446 (통500) 주 음성 외에는

새292 (통415) 주 없이 살 수 없네

2. 여는 질문

인생을 살면서 가장 희망이 필요했던 적은 언제였습니까?

희망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의 고난과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역설적인 면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희망이 다 끝난 듯 보였지만, 실은 인간의 눈으로는 상상할 수 없었던 부활이라는 엄청난 기쁨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셨습니다. 인생에서 절망의 경험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 간절히 소망했던 꿈이 산산조각 났을 때, 오랫동안 계획하고 기대했던 일이 처참하게 깨어졌을 때, 절망하는 것은 당연한 인간의 감정입니다. 그리고 절망의 경험을 한번도 안해본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기도 합니다. 소그룹 참석자들에게 절망의 경험이 어떠하였는지 물어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 하였는지도 물어봅니다.

현재 나는 어디에서 인생의 희망을 발견합니까?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둘러보면 절망을 할 일이 많습니다. 전쟁, 폭력, 정치

인들의 부패, 종교지도자들의 부도덕함 등으로 인해 우리는 인류의 역사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발전이 없는 듯 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시는 희망을 보고자 하면, 매일 매일 그 희망을 찾기가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작은 친절, 선심, 어려운 자들 돕는 행동 등 사실 언론에 기사화 하지는 않는다 하여도 희망을 보여주는 일들은 가까운 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어떤 희망을 경험하고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

3. 본문 이해

이스라엘은 지정학적으로 주변 강대국들에 인접해 있어서 항상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에굽, 앗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등 주변 세력들이 바뀔 때 마다 새왕국들을 그 영토와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을 침공하여 식민지배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주변의 작은 왕국들도 틈 날 때 마다 치열한 생존 경쟁을 하였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아람 왕국은 현재 시리아의 위치에 있었으며, 수도는 현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쿠스였다. 다마스쿠스는 신약시대에 사도바울이 다마스쿠스(다메섹)로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나고 회심한 장소로 잘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구약시대에 아람왕국은 강국 중의 하나였습니다. 열왕기하 7장에서는 북왕국의 사마리아 성이 아람군에게 포위가 되어 식량이 없는 사태가 발생했음을 알려줍니다. 이에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식량을 주시니 걱정하지 말라고 사람들을 위안합니다. 그러나 그 식량이 어떻게 공급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뜻밖에도 그 식량의 공급은 힘있는 정치인, 전략가, 군사 등이 아니라 전혀 사회적인 힘이 없던 나병환자들의 활동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당시 유대교의 율법에 의하면 나병환자들은 성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기근이 와서 식량이 없게 되자, 이 네 명의 나병환자들은 차라리 성 안으로 들어가서 밥이라도 먹은 후에 죽임을 당하든가, 아니면 성문 밖에서 굶어 죽는 것이 더 나은가 하는 참 가슴 아픈 대화를 하게 됩니다.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는 생각에 이들은 차라리 적진에 들어가서 투항하고 밥이라도 얻어 먹자는 제3의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적진에 들어가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람군사들이 적군이 오는 줄 알고 모두 철수한 것이었습니다. 나병환자들은 우선 허기를 때우고 옷도 갈아입은 후에 성으로 가서 아람군들이 퇴진하였음을 알렸습니다.

참모도 아니고, 대장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위치이 있어 성으로 들어올 수조차 없는 나병환자들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데 큰 공을 세운 것입니다. 나병환자들이 그들의 상황에 절망하여 그대로 굶어 죽었다더라면 모두 패자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희망을 잃지 않은 덕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이라도 절대로 희망을 잃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꼭 써 주심을 믿어야겠습니다.

3. 말씀 속으로

나병환자들은 왜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갔습니까?

나병환자이기에 성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음식이라도 한번 제대로 먹고 죽어야겠다는 처량한 마음으로 적지인 아람 군대 진영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을 때의 마음은 참 참담했을 것입니다.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는 병이 있다는 이유로 정결치 못하다는 취급을 받고 공동체에서 소외되었습니다. 적지에 들어가면 살해당할 것이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람군대 진영에 들어가서 끝까지 버티어 보자는 나병환자들의 용기가 돋보입니다.

나병환자들은 왜 성에 가서 아람 군대의 퇴진을 알렸습니까?

비록 본인들을 공동체에서 소외시키기는 했으나, 그래도 동족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막상 죽을 각오로 아람진영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없으므로, 음식도 먹을 수 있었고, 목숨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참 감사한 상황입니다. 감사한 마음에 무엇이고 좋은 일을 하고자 하는 생각을 유대인들에게 적이 퇴진했다는 좋은 소식을 알리면서 스스로에게도 기쁨을 주는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4. 삶 속으로

성문 앞의 문둥병자들처럼 갈 곳이 없어서 절망해 본 적이 있나요?

“성문 앞의 문둥병자”라는 것은 오갈 곳이 없는 서러운 상황을 나타냅니다. 그저 죽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소그룹 참석자들에게 그런 비슷한 경험에 있었는지 물어 봅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에 어떤 희망을 주시나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꼭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희망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뜻일지 함께 나누어 봅니다. 하나님의 희망을 어떻게 경험하셨는가요? 희망이 주는 힘은 무엇인가요? 나는 어떻게 우리 세상에 희망을 주고 있나요? 등의 질문을 합니다.

5. 암송구절: 열왕기하 1:1b (한 주간 동안 암송구절을 암기하신 후, 다음 모임에서 서로 확인합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6. 자녀와의 나눔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소그룹 나눔을 진행하시면서 나눌 수 있는 질문입니다.)

아이들에게 “너는 속상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어떤 부탁을 하니?” 하고 물어봐 주세요.

(3주) 셋째 주 소그룹 모임

본문: 열왕기하 19:1-7

주제: 두려워하지 말라

찬송:

새67 (통 31)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새80 (통101)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새338 (통364)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1. 여는 질문

나는 어린 시절 무엇을 가장 두려워 했나요?

두려움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새로운 곳에 갔을 때, 큰 임무를 맡았을 때, 새 일을 시작할 때,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생계에 위협이 올 때, 혹은 누군가로부터 위협을 받을 때 등등 여러 경우에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선 과거에 있었던 두려움의 경험을 나누게 합니다.

최근에 내가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최근 혹은 현재에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나누어 봅니다.

2. 본문 이해

남왕국 유다의 히스기야 왕 당시 앗수르는 최대 강국이였다. 앗수르는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을 패망시키고 식민화시킨 바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이제 예루살렘을 위협해 오면서 하나님을 모독하자 용기가 많던 히스기야 왕도 실의에 빠집니다. “옷을 찢고 베를 두르는” 행위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거나 큰 고통이 있을 때 행하는 애통과 아픔의 표현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런 큰 고통을 표현하며, 성전에 들어가서 종교지도자들을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마치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가 됐으나 해산할 힘이 없는 것과 같다는 비유로 그 절망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이에 선지자 이사야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성서에 자주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에서도, 한 천사는 수태한 마리아에게, 또 다른 천사는 정혼자의 임신을 알게 되어 깊은 고민을 하고 있던 요셉에게, 생전의 예수님은 폭풍 속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또한 부활한 예수님은 공포에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적들에 둘러 싸인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선지자를 통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되는 것은 그만큼 인간들이 두려움이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을 때, 패배가 예상될 때, 고통의 문턱에 서 있을 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쩌면 인간으로서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들 때 마다,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두려웠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어쩌면 지금이 그 순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하나님께 의지한 것처럼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야 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3. 말씀 속으로

히스기야 왕이 “아이가 임신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라고 한 것은 어떤 감정을 표현한 것일까요?(3절)

소그룹 모임 전에 18장을 자세히 먼저 읽어 보십시오. 18장에서 앓수르의 지휘관은 남왕국 유다의 히스기야 왕을 조롱하면서 앓수르 왕이 앞으로 남왕국 유다를 침공하고 예루살렘을 점령할 것이니 다 항복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여호와와는 절대로 남왕국을 지켜주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이 말을 전해들은 히스기야 왕은 몹시 고통스러워하며, 산모가 임신을 하여 해산할 때가 되었으나 힘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모든 노력을 다 했는데, 이제는 모든 힘이 다 빠졌다는 말입니다. 앓수르는 이미 북왕국 사마리아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은 그동안 용기있게 앓수르를 대하고 있었습니다. 앓수르 왕이 심한 조공을 요구하기에 성전 문에 있던 금을 떼어서 주는 큰 희생을 치르면서도 유다 백성들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앓수르 왕의 대신이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서 그 말을 들으라 했지만, 왕이 대신을 만나러 나간다는 것은 굴복을 상징할 수 있기에 직접 나가지 않고, 유다의 대신 3명을 보내는 담대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식민경험이 얼마나 서글픈지를 역사로 알고있는 한국인으로 유다 왕국이 당시 강대국이었던 앓수르로부터 침공의 위협을 받고 굴욕의 대우를 받는 것이 어떤지는 마음으로 이해가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와중에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는 신뢰를 잃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지탱할 힘이 없는 어려운 가운데 선지자 이사야를 생각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선지자 이사야에게 어떤 기도를 부탁했습니까?

백성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4. 삶 속으로

두려움을 모두 내려 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할까요?

히스기야 왕이 나라가 멸망할 위기 속에서, 또 여호와가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 장담하는 적군의 모욕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였듯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는 두려움과 위협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할 수 있는지 생각을 나누어 봅니다. 교회공동체와 함께 위기를 극복한다, 기도를 한다, 평소에 성경공부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신앙인들에게 힘을 주었는지 기억한다 등등의 의견 등을 나누어 봅니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누구와 함께 나눌 수 있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기도를 혼자하지 않고 선지자에게 함께 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기도를 다른 이들과 함께 할 때에 더 큰 힘이 됩니다. 소그룹 참석자들이 기도제목을 소그룹 안에서도 서로 나누고, 또 기도생활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5. 암송구절: 열왕기하 19:6b (한 주간 동안 암송구절을 암기하신 후, 다음 모임에서 서로 확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앓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바 나를 능욕하는 말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6. 자녀와의 나눔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소그룹 나눔을 진행하시면서 나눌 수 있는 질문입니다.)

아이들에게 “너는 무서울 때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니?” 하고 물어봐 주세요.

(4주) 넷째 주 소그룹 모임

본문: 열왕기하 23:1-9

주제: 회개 후의 행동

찬송:

새240 (통231)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새182 (통169)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새338 (통364)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1. 여는 질문

이사, 새 직장 등 변화가 있을 때 주로 어떤 느낌이 듭니까?

변화는 삶에 스트레스를 준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 - 직장 승진으로 인한 이주, 유학을 위한 이주 등 - 로 변화가 온다고 해도 변화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좋지 않은 일이나 원치 않은 변화가 올 때 -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정이 많이 들은 목사님이 다른 교회로 옮겨 가실 때, 부모가 이사를 결정하여 청소년이 알던 친구들을 떠나 새동네 새학교로 옮겨야 할 때 - 에는 그 변화는 더 큰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러나 또 경우에 따라 변화가 필요하고 변화가 있기에 삶에 생기를 되찾기도 합니다. 맹모삼천지교의 이야기는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 맹자를 위해서 세 번이나 이사를 하며 아들의 성장을 위한 좋은 환경을 추구하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변화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경험을 잠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변화가 필요한데, 가족이나 친구들이 변화를 싫어할 때 어떤 조언을 해 주십니까?

맹자의 어머니가 이사를 다닐 때 맹자가 만약 그 변화를 너무 싫어하였다더라면 그의 어머니는 그를 어떻게 설득시켰을까요? 변화는 꼭 필요한데, 그를 싫어하는 혹은 거부하는 주변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2. 본문 이해

남왕국의 요시아 왕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는 선대왕들의 잘못된 점을 고치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불러 일으키고자 큰 노력을 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통치 중에 획기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요시아 왕이 예루살렘 성전의 보수공사를 명하고 실천시키고 있는 중에 한 책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는 열왕기하에서 “언약책” 혹은 “율법책”이라고 설명되어있고, 현대 학자들은 이 발견된 내용이 신명기의 일부이거나 비슷한 내용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요시아 왕은 이 율법책의 내용을 읽고 크게 통탄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관행되고 있던 우상숭배 등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서 얼마나 동떨어진 것인지를 확연하게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성전은 영적으로 이미 폐허가 된 상태였습니다.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제도 있고, 남창도

존재했던 것으로 보면 그 폐해가 극심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하여 요시야 왕은 일렬의 대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시작은 이방예배를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성전과 예루살렘 주변에 있던 모든 우상을 완벽히 제거하고 불태워 기도론 시내에 버리게 했습니다. 또한 모든 주민과 제사장, 선지자 등 종교지도자들을 예루살렘 성전에 불러 모아서 새로 발견한 율법책의 내용을 교육시켜 주었습니다. 많은 주민들에게는 처음 듣는 율법의 내용일 수도 있었습니다. 요시야는 이 율법을 언약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뜻을 다해 순종하리라는 언약을 세웠습니다. 예루살렘 뿐 아니라 과거 여로보암 왕이 벧엘에 세운 이방 신당도 모두 제거하였습니다.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키고, 다른 여러 개혁을 실행하였습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회개 후의 행동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죄를 고백하고, 지나간 잘못된 삶을 통탄한다 해도, 새롭게 살지 않는다면, 그 회개는 의미가 없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예배 때마다 회개의 기도의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회개 후의 행동은 어떠합니까? 회개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회개 후의 행동이 진정한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기억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요시야 왕의 개혁은 결국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는 왕이 지도자로서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백성들이 마음의 개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고 개혁이라 해도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진정한 개혁이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요시야 왕의 신실함을 하나님은 기쁘기 생각하였으나, 백성들이 따라오지 못한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3. 말씀 속으로

요시야 왕이 언약책을 발견한 후에 그 내용을 백성들과 어떻게 나누었습니까?(1절-3절)

요시야 왕은 나라의 지도자들을 모두 모으고, 예언자들, 제사장들, 그리고 모든 백성과 함께 성전으로 올라가서 새로 발견된 언약책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언약책에 담겨진 모든 율법과 계명을 따르리라고 하나님께 서약하고, 본인 뿐 아니라 모든 백성이 서약하도록 하였습니다.

요시야 왕은 언약책의 내용을 나눈 후 어떤 행동을 하였습니까? (4절-8절)

요시야 왕은 대 변혁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성전에서 행해지고 있던 이방신 예배를 없애기 위해 아세라 여신, 해와 달과 별을 숭배하는데 사용된 모든 기구를 성전에서 없애고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기도론 골짜기에서 불태웠습니다. 또한 유다 전역에서 행해지고 있던 이방신 산당을 없앴습니다. 성전 안에 있던 남창들의 숙소를 헐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만을 위해서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대개혁이었습니다. 이를 행할 때 반대가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요시야 왕은 과감하게 예배개혁, 성전개혁을 통해 신앙개혁을 추구하였습니다.

4. 삶 속으로

하나님은 오늘 내가 어떤 신앙의 개혁을하기를 원하실까요?

소그룹 참석자들이 스스로의 예배나 영성훈련의 습관을 보다 신실하게 하기 위해 어떤 개혁을 해야 할지 나누어 봅니다. 교회나, 사회전반, 혹은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 개혁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무엇을 바꾸어야 할 지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상은 무엇일까요?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이방신을 섬기거나, 다른 우상을 만들어서 예배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징적인 의미에서 물질주의, 이성주의, 혹은 권위, 권세 등의 우상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 보다 더 우선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함께 나누어 봅니다.

5. 암송구절: 열왕기하 23:3중 (한 주간 동안 암송구절을 암기하신 후, 다음 모임에서 서로 확인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6. 자녀와의 나눔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소그룹 나눔을 진행하시면서 나눌 수 있는 질문입니다.)

아이들에게 “너는 하나님을 더 성실하게 섬기기 위해 오늘 새롭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니?” 하고 물어봐 주세요.